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8호 [무게 제26102호] 주제 107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항일의 열전 단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은 군중들의 불꽃이 끊이지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작금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작금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동상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그리움의 대하가 굽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잊지않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위 라 쯏 동 지

나는 당신의 생일 81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올바른 명도밑에 형제적인 라오스정부와 인민이 당 제10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대수령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발전하여온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가 세세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7(2018)년 8월 15일

평양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로병력행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로병력행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선물은 15일 인민무력성 특근대장 노광철동지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로병력행대표단 단장인 예비역군대장 미하일 보이세데브리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 방송 김정은령도자께서 금산포전갑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전경도에서 태실을 들으시며 지난해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이후 집행한 과업들과 첫날출생산정형을 보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제품전시실에 전시된 시계제품을 보시면서 가치가 정말 많다고, 한가지 불고기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것은 다 해놓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권금이 돌게 포장도 잘하고 형식도 다양하다고, 첫날출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또한 제품제조공정을 찾시고 차곡차곡씩 세워져있는 것같은 제품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불타는 열의는 좋겠다고, 치

음 전설하는 첫날가공공장이어서 생산성이 담보되었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여놓은 첫날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층이러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하시었다. 중국의 인민망, 환구망, 로씨야의 30여개 언론들, 싱가포르 신문 《연합정보》, 기네스, 국제방송, 7개인민혁명당, 도이썬 판도판지연단 인터넷포럼까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락두산제스프조선선선협회, 민주공고주세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까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 팔신보 《아르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형의 무페도전차와 페도전차를 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의 거대한 불꽃이 온 나라에 타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 7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해방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은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장인담대한 태도와 모욕하고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함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조국해방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항일의 길에 나서시어 20여상상 백두봉아의 실관총에서 온갖 간난고고를 다 겪으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기 위한 수령님의 민족사적항일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어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에 두 제국주의를 타도하시어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기 위한 수령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최대의 대정지령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만세군사건설을 철옹성같이 다지고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마련하시어 우리 인민의 조국수호전,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열정, 강군님원신현을 자신의 의무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명성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어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길이 빛내어주시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천만국민의 정신력을 총괄하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승리의 난대기를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용을 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7(2018)년 8월 15일 중국 심양

## 민족해방의 은인,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여러나라 출판보도물 특집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영웅미술품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이러한 일나눔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은 무장투쟁을 벌리시어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꺾어내고 나라를 해방시킨 김일성주석을 민족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이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류폐없이 강고한 절정이었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승리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었다. 김일성주석의 명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언제나 주춤에서 상대를 압도하였으며 기발하고 신묘한 전법들로 일본침략자들과 싸워 이겨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 민족해방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원은 인터넷포럼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이렇게 서술하였다. 인문사에는 사멸의 위기에 처하였던 민족을 구원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려사에 기록된 민족적영웅들의 공적과 헌신을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할 위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벌리신 항일혁명전사, 조선인민해방투쟁사이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엄혹한 조건에서 승리를 위한 애국사전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갔습니다.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시며 온 겨레의 운명과 행복의 전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념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 하여 주석의 조국해방업적은 더욱 빛나고있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김일성주석을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전설적영웅으로 길이 숭상하며 우리르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공고신문 《라브너르》도 《김일성주석과 항일혁명전사》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반면에 전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따사로운 해 빛 아래 꽃피는 생활

## 황해북도 은정 축산 전문 협동 농장을 찾아서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폐쇄된 집단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살기 좋은 고향으로 천지개벽되었다.

우리는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을 떠났고 그곳을 길이 느꼈다. 전경에 대한 최고의 집합을 만났는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열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지애로운 헤아리이다.》

평양-개성고속도로를 벗어난 취재차는 은정철을 따라 기세좋게 달렸다.

《우리는 푸른 벼바다를 살피고 풀밭에서는 염소, 양들이 한가로운 풀을 뜯고있는데 그 모습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다.》

나미였던 지난날 살길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보편을 끌어내고 숲이로 겨우 목숨을 이어 가던 산골짜기였다.

바로 그 고장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오늘날의 농촌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리소제에서 도착한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오늘날 모습 그대로 서있는 한채의 농가집이었다.

산에서도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장사는 이렇게 말씀이었다.

《그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이러한 수평년들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나타났던 지난날 부모의 생일에 흰쌀밥 한그릇 못 따주는 못하던 고장에서 벼농사를 하던 최고의 고기, 과일장

말이 한심하며 집주변에 쓸데없는 풀이 많이 있어 농촌풍경이 어둡게 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었다고 걱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이었다.》

정경에는 최고의 집합을 만났는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가 구원된 우리 삶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가 구원된 우리 삶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 성천제사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성천제사공장은 명실상부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의 참모습이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의 참모습이다.》

정경에는 최고의 집합을 만났는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의 참모습이다.》

## 여러모로 좋은 감자가루

### 감자가루로 만드는 다양한 가공식품들

감자가루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수분을 빼낸 가루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자가루는 그 영양적 가치로 모든 감자 농작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감자는 맛이 있을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아 정상적으로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감자는 맛이 있을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아 정상적으로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감자가루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수분을 빼낸 가루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자가루는 그 영양적 가치로 모든 감자 농작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감자가루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수분을 빼낸 가루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자가루는 그 영양적 가치로 모든 감자 농작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감자가루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수분을 빼낸 가루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자가루는 그 영양적 가치로 모든 감자 농작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친 진정

진정한 8월 청년절을 맞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느때와 달리 흥겨웠다. 웃음도 노래도 맑고 혁신의 자랑 또한 많은 처녀들이 너도나도 춤판으로 뛰어들었다. 그중에서 한 처녀의 모습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정한 8월 청년절을 맞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느때와 달리 흥겨웠다. 웃음도 노래도 맑고 혁신의 자랑 또한 많은 처녀들이 너도나도 춤판으로 뛰어들었다. 그중에서 한 처녀의 모습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정한 8월 청년절을 맞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느때와 달리 흥겨웠다. 웃음도 노래도 맑고 혁신의 자랑 또한 많은 처녀들이 너도나도 춤판으로 뛰어들었다. 그중에서 한 처녀의 모습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정한 8월 청년절을 맞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느때와 달리 흥겨웠다. 웃음도 노래도 맑고 혁신의 자랑 또한 많은 처녀들이 너도나도 춤판으로 뛰어들었다. 그중에서 한 처녀의 모습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 오늘도 울려오던 그날의 웨 집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야만적인 식민주의적 정예미용의 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준 친일파 우파 일제.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낡은 노예적 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친일의 상처를 남겼다.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야만적인 식민주의적 정예미용의 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준 친일파 우파 일제.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낡은 노예적 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친일의 상처를 남겼다.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야만적인 식민주의적 정예미용의 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준 친일파 우파 일제.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낡은 노예적 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친일의 상처를 남겼다.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야만적인 식민주의적 정예미용의 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준 친일파 우파 일제.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낡은 노예적 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친일의 상처를 남겼다.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야만적인 식민주의적 정예미용의 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준 친일파 우파 일제.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낡은 노예적 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친일의 상처를 남겼다.

## 피의 저수지

피의 저수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의 참모습이다.》

피의 저수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화폭을 그려나가는 인민중심주의의 참모습이다.》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일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은정군교양관을 찾은- 본사기자 한 명명 특음

